

공적 증언 보고서

개혁주의 전통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속적인 자기 성찰의 습관과 그에 따른 부르심을 실천하며, 이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를 분별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WCRC 집행위원회는 2025년 총회를 위한 공적 증언 보고서 준비를 촉진할 방법론과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공적 증언 핵심 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1년에 걸친 과정을 통해 개혁주의 가족과 에큐메니컬 파트너들로부터 시급한 문제와 관심사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증인들의 구름'이라 불리는 여러 그룹을 거쳐, 2025년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7차 총회에서 임명된 공적 증언 위원회(PWC)로 전달되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PWC는 경청과 분별의 정신을 이어가며 공개 청문회와 서면 제출을 통해 추가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공개 및 구두 제출 자료와 제27차 총회 내 다양한 행사에서의 대화들은 내용을 정교화하고 명확히 하며 새로운 통찰과 추가 제출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원회는 교회와 지역, 에큐메니컬 파트너들의 맥락에서 제기된 긴급한 사안들을 분별하기 위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별했습니다.

총회의 네 가지 동사(분별, 고백, 증언, 개혁됨)와 다섯 가지 프로그램적 행동(P1-P5)에 부합하여, 본 보고서는 회원 교회 및 지역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제출물을 모아 제시합니다. 이 청원들은 각 지역에서 개혁주의 가족이 살아가는 현실과 예언적 신념을 표현합니다. 종교개혁의 미완성 과제에 이끌리고 벨라 및 아크라 신앙고백과 라이프치히 총회의 영감에 따라, 공적 증언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공동체의 분별 행위로서 제시합니다. 이는 교단 내 교회들과 파트너들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각 제출물은 우리 회원 교회와 협력 교단의 삶 속에서 우러나온 정의와 증언에 대한 외침입니다. 공적 증언 위원회는 지속적인 분별 과정 속에서 각 제출물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관심사들의 상호연결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창조계와 이주민을 위한 정의: 지구와 주변부로부터의 공동 외침

생태적 정의, 강제 이주, 태평양 지역의 신학적·맥락적 증언과 관련된 제출물들에 대해 위원회는 이 문제들 사이의 깊은 상호연관성과 창조계와 이주민을 위한 정의라는 공유된 신학적 토대를 인식했습니다. 위원회는 생태계 붕괴, 강제 이주, 핵 불의, 경제적 불의, 자결권 투쟁이 고립된 위기가 아니라 단 하나의 깨진 관계—인류와 하나님, 이웃, 창조계 사이의 언약—의 표출임을 확인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통합 성명서, '창조계와 이주민을 위한 정의: 지구와 변방의 공동 외침'을 제시합니다. 이 성명서는 네 가지 제출 자료 모두의 신학적 통찰과 구체적 요청을 종합하여, 행동과 분별을 위한 총회에 대한 통합된 증언을 제시합니다.

A. 생태적·기후 정의 — 피조물과의 교제

2025년 치앙마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모인 세계개혁교회연합 제27차 총회는 생태적 재앙, 강제 이주, 핵 오염, 지속되는 식민지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와 피조물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이 인간과 하나님, 이웃, 창조계와의 깨어진 관계가 서로 연결된 징후임을 확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 그리고 정의와 평화, 창조계의 온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촉구합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시편 24:1). 인류의 소명은 하나님의 오이코스, 즉 생명 공동체를 돌보는 데 있습니다.
- 기후 변화, 강제 이주, 핵 오염, 그리고 지속되는 식민적 착취는 경제 및 정치 체계 속 깊은 구조적 죄악을 드러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가 가장 취약한 이들—원주민, 여성, 청년, 이주민 공동체—과 연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 도 카모(Do Kamo)의 태평양 비전(참된 인간성, 교제, 해방)과 같은 맥락적 신학은 성령께서 이미 신앙과 저항의 공동체를 통해 지구를 새롭게 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애도합니다:

- 탐욕과 착취적 경제로 인한 창조물의 파괴.
-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태평양 전역의 섬들에서 가난한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가해지는 기후 위기의 영향.
-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상실.
- 글로벌 책임을 거부하는 생태파시즘과 민족주의 이념의 부상.
- 1억 1,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강제 이주.
- 국경의 군사화와 이주민 및 난민을 비인간화하는 정책.
- 하와이, 마오히 누이, 카나키, 서파푸아, 아오테아로아에서 지속되는 식민지화와 자결권 부정.

총회는 아래 사항을 결단으로 채택합니다:

A. 생태 및 기후 정의

1. 생태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인식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촉진합니다.
2. 기후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합니다.
3. 화석 연료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옹호합니다.
4. COP 등 국제 절차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회원 교회와 공유합니다.

5. 오이코스 공동 돌봄을 위한 과학적 증거와 신앙적 분별에 근거하여 옹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B. 이동하는 사람들과 강제 이주 — 상호 환대 안에서의 교제

상호 환대의 실천을 통해 강제 이주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이동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총회는 다음을 요청합니다:

1. 전쟁, 경제적 불의, 기후 변화, 차별 등 강제 이주의 근본 원인에 대해 공동체를 교육합니다.
2. 온라인 세미나와 연대 방문을 통해 이주 문제에 협력합니다.
3.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이주 정책을 옹호합니다.
4. 지속 가능한 생계 구축과 군사주의 저항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지원합니다.
5. 전체 인구가 아닌 억압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 및 책임 조치를 촉구합니다.
6. 청년과 세대 간 네트워크를 참여시켜, 연대의 다리를 놓고 이주와 소속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확장합니다.

C. 태평양 증언과 지역 연대

본 제출문은 인간의 번영이 바다와 섬의 건강한 상태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언하는 생명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일부로서 우리의 위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세계 교회가 인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총회는 도 카모(Do Kamo)의 비전을 통해 드러난 태평양 교회의 신학적·도덕적 지도력을 확인하며, 이것이 참된 인간성, 해방, 그리고 교제를 향한 부르심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태평양의 filemu, melino, sautu 개념과 성경적 살롬에 기반한 ‘평화의 바다 선언(Ocean of Peace Declaration)’을 군사화된 안보에 대한 신앙적 대안으로 지지합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신앙과 정의,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표현하는 탈식민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라.
2. 체계적인 멘토링, 거버넌스 참여, 에큐메니컬 형성을 통해 청년과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라. 특히 기후 정의와 회복탄력성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를 추진하라.
3. 생태 공동체 신학을 신학 교육과 목회자 양성 과정에 통합하라.
4. 태평양 지역의 기후 약속을 지원하라: 심해 채굴 중단 및 화석 연료 투자 철회; 기후 영향 지역을 위한 트라우마 케어 네트워크 구축; 장애 포용, 비전염성 질환 예방, 중독 또는 마약 위기 피해자를 위한 목회적 돌봄을 포함한 건강 및 복지 문제에 대한 문화적 기반을 대응하라.

5. 태평양의 핵 유산을 해결하고 환경 정의를 추구하라:
- 과거 핵폭발과 현재의 위협(예: 룡잇 돔의 붕괴)이 생명과 창조물을 계속 위협하는 마셜 제도 공화국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핵실험 피해 공동체와 연대한다.
 - 에큐메니컬 기구와 협력하여 미국과 프랑스의 책임 추궁을 촉구하며, 공식 사과, 공정한 보상, 환경 복원을 위한 기술 지원을 포함한다.
 - 피조물에 대한 돌봄, 진실, 책임성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 사회 내에서 진실 고백, 인식 제고, 화해를 장려한다.
 - 핵 정의가 푸른 태평양 대륙 전역의 생태적·기후적 정의에 필수임을 확인한다.

모든 존재를 위한 정의

모든 존재를 위한 정의와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여기에는 퀴어 개인과 공동체의 보호와 관련된 인간 성(性) 및 생식권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인간 성에 관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입장을 공유하지 않음을 이해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장을 추가합니다

인간의 성(라이프치히 문서 46-48쪽 각주 참조)

우리는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랑, 존중,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LGBTQIA+ 및 성별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 폭력, 사회적 배제를 규탄하며, 일부 신앙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하여 두려움과 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최소 67개국이 여전히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고 있으며(중종 식민지 시대의 모호한 법률을 통해), 9개국은 특정 성별 표현을 범죄화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보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폭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LGBTQIA+ 개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항입니다.

우리는 노예제, 식민주의, 엄격한 성적 규범과 같은 억압적 관행을 지속시키는 데 교회가 역사적으로 기여한 역할을 인정하며, 회개와 공동 성찰, 치유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해로운 종교적·세속적 정책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본보기로 삼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건설적인 단계는 LGBTQIA+ 개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도와 포용적 대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산을 다루고 경직된 성 역할과 남성 지배에 도전함으로써 신앙 공동체는 더 안전한 환경을 증언하고 조성하며 인권을 증진시켜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삶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다음을 촉구합니다:

1. 하나님의 창조물의 다양성, 특히 생명을 주는 인간의 사랑과 성(性)의 선물을 기억한다.
2.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을 낙인 찍거나 처벌하거나 배제하려는 시도를 명백히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포용의 복음을 증언하라. 특히 교회 생활과 지도부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분명하게 지적한다.
3. 성적 지향과 성별 표현의 사회적·신학적 의미를 회원들이 깊이 이해하고, 성별과 성에 관한 문제에서 교회가 예언적 증언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며, 향후 공공 정책 옹호를 위한 합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및 협의 과정을 진행할 것이며, 이러한 협의에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생식권: 모든 공동체를 위한 정의 문제

위원회는 생식권 문제가 우리 교단 내 다양한 신학적·문화적 관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 성별 정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공동 분별의 일환으로 이 제출안을 포함하며, 성령께서 교단을 더 깊은 이해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충만함(요한복음

10:10)은 모든 이의 존엄성, 안전, 복지를 포함합니다. 생식 정의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성별, 인종, 계급, 종교 문제와 교차하며, 생식 자유를 평등과 존엄의 초석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가부장적, 식민적, 경제적 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통제는 여성의 인격과 시민권을 계속 제한하며, 특히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출산 부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법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서의 교제 정신 안에서 교회는 생명을 훼손하는 모든 권력에 맞서 싸울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출혈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마가복음 5장)은 율법이나 관습을 초월한 온전함과 존엄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드러냅니다. 신체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가리는 행위이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돌보기 위해 국가가 승인한 의례화된 법을 전복하신 점에서 생식권에 대한 계시적 본문으로 볼 수 있다. 법적 제한을 통해 출산하는 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비물질화하려는 직접적인 시도이다. 만일 이마고 데이(Imago Dei)가 세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각 사람 안에 살아 있다면, 그러한 몸들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묶으려는 시도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선택과 자원 공유가 우리의 번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신다. 서로를 돌보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생식권은 인간 삶의 완전성에 있어 필수적인 차원이다. 생식 정의라는 더 넓은 틀 안에서, 이러한 권리는 신체적 자율성의 신성함과 가족 및 공동체의 복지를 확증한다. 피임, 안전한 낙태, 교육,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과 함께, 임신 및 산후 기간 동안의 건강 자원 부족과 치료 거부로 인해 예방 가능한 사망이 발생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생식 건강 분야의 체계적 불평등을 강화한다.

총회는 다음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1. 생식권을 교단의 성평등 정의 사업에 포함시키고, 상황에 맞는 자원과 지원이 필요한 교회들에 주목할 것.
2. 선택의 신성함, 존엄성, 공동체 복지를 확증하는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돌봄을 장려할 것.

이러한 호소는 사랑과 존엄, 생명의 번영을 중심에 두는 공동체를 통해 분별하고, 고백하며, 증언하고, 개혁을 위한 총회의 헌신을 구현합니다.

교회 내 성폭력

우리는 권력이 억압과 착취에 이용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권력의 기관이며 권력 남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걸쳐 권력은 공동체 구성원을 지배하고 침해하기 위해 오용되어 왔으며, 이는 성적·영적·기타 다양한 형태의 학대로 드러나 생존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경청하지 못한 실수와 지속적인 무지를 인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 우리 교회들이 자기 성찰과 의미 있는 변화의 여정을 위한 준비가 부족함을 애도한다.

우리는 WCRC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권력의 비판적 사용, 역사적 실패, 학대 예방에 관한 상호 공유와 학습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모든 회원 교회가 성추행 방지 정책, 예방 교육 및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독립적인 지원 체계를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 주 민
PWC는 식민주의의 지속적 영향과 원주민의 토지, 정의, 자결권에 대한 권리 부정에 관한 본 제출서의 깊은 우려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단의 정의 증언과 창조물 및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 핵심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원주민의 권리는 토지 강탈과 억압적인 식민 체제를 통해 침해되어 왔습니다. 많은 교회는 전적으로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복, 배상, 화해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북미, 카리브해, 태평양,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 원주민 집단이 유사한 권리 침해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미 차별에 직면한 원주민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식민주의의 잔재는 전 세계 원주민의 권리를 계속 제한하며 중대한 인권 및 경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개발과 진보라는 명목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원주민 땅을 강탈하고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원주민인 아디바시(Adivasis, 원주민)들이 물, 숲,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드러나듯,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동은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타인의 종교적 전통을 근거로 그들의 권리와 경험을 제한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원주민에 대한 역사적이며 지속되는 불의를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옹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도록 부르받았습니다.

총회는 다음을 촉구합니다:

1. 원주민들에게 경제적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주민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 성명을 채택하라.
2. WCRC 회원 교회들 내에서 원주민 권리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십시오.
3. 우리 교단과 회원 교회 전반에 걸쳐 원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지속적인 차별과 억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할 것.

아프리카계 후손 - 인정, 정의, 발전

의회가 정의로운 교제를 촉진하고 노예제와 인종주의의 유산에 대한 배상을 추구하라는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상황에 관한 제출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아크라 신앙고백은 특히 케이프 코스트 노예 성채에서의 경험으로 인한 도전들을 인정했습니다. 2007년 노예제 종식 200주년 기념 모임 또한 에큐메니칼 가족에게 그 유산의 영향을 주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개혁 교회 가족이 그 유산의 현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의 지속적인 유산은 수십 년간 세계적 에큐메니칼 및 시민사회 파트너들에 의해 인식되어 왔습니다. 2010년 더반 회의와 그 이전 논의들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노예화가 미친 영향의 중요성을 명시했습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핵심적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 정의와 포용을 증진하며, 인종차별을 근절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위한 국제 10년'을 제정했습니다. '인정, 정의,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이 10년 계획과 그 결과로 설립된 아프리카계 후손을 위한 상설 포럼은 백인 우월주의와 차별적 사회 구조 같은 체계의 지속적인 영향에 맞서면서 아프리카계 후손의 안전, 삶의 질, 생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의와 행동의 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이 있었음에도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교육, 의료, 주거, 사회보장 분야에서 지속적인 장벽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인종 프로파일링, 경찰 폭력, 성별, 연령, 종교 또는 기타 요인에 기반한 복합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착취와 사회적 배제를 포함한 아프리카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조작적 행위들은 아프리카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개인, 교회 및 공동체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과 폭력 행위의 종식을 요구합니다.
2. 개별 흑인 신분에 대한 폭력적 공격과 수감의 국가 간 구조적 체계와 과정에 내재된 제도적 인종주의로 인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3. 백인 우월주의 이념과 인종적 우월성을 없애고 배상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하라.
4. 아프리카계 후손을 위한 상설 포럼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고, 부대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회원 교회 및 지역 단체들의 경험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하라.
5. 포럼의 우선순위와 활동이 WCRC 관련 의사 결정 기관에 제시되고 총회(General Council)의 옹호 영역의 기초가 되도록 하십시오.

모든 형태의 노예제 극복

역사적 불의에 대한 배상과 치유를 위한 교단의 호소에 이어, 회원 교회들은 현대적 및 계승된 형태의 노예제에 관한 성명을 제출했습니다.

비록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그 유산은 개인적·구조적 형태의 인종차별, 불평등, 착취를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혈통에 기반한 차별, 강압적이거나 위험한 노동 조건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로 하여금 인간과 피조물을 노예화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고 극복하며 화해와 회복,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받습니다.

1. 모든 형태의 노예제와 그 지속되는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선교협의회(CWM), 루터교 세계연맹(LWF) 등 다른 에큐메니컬 기구들과의 협력을 지지하고 확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2. 회원 교회들에게 '노예제'가 각자의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경청하고 행동하며 살펴볼 것을 촉구합니다.
3. 부정의를 변화시키고, 기억을 치유하며, 회복과 배상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예제와 그 지속적 유산으로 고통받는 이들과의 동행과 연대를 회원 교회들에게 권유합니다.

달릿과의 연대 - 출생과 직업에 기반한 차별 해체

정의의 언약(2쪽) — 민주주의와 인종 및 카스트 해체 — 아래에서 위원회는 달릿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는 제출물을 접수했습니다.

과거 '불가촉천민'이라 불렸던 달릿은 인도 카스트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순결과 오염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계층적 사회 계급 체계로 억압받아 왔다. 이는 직업과 혈통에 기반한 차별 체계이다. 이러한 억압은 오늘날에도 사회적 배제 관행을 통해 지속되며, 불가촉성 관행과 폭력을 포함한다. 물론 달릿 여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도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달릿입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달릿과 달릿 기독교인, 그리고 그들의 존엄성과 해방을 위한 투쟁에 연대하십시오.
2. 국제 포럼에서 달릿 해방을 옹호하라.
3. 카스트, 인종, 직업 또는 혈통으로 인해 억압받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간 상호 연대를 강화하는 협의회를 조직할 것.

모두를 위한 정의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유 및 자결권

평의회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증언을 지속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 교회들로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지속적 상황에 관한 제출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최근 휴전과 평화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팔레스타인 국민은 지속적인 토지 파괴, 강제 이주, 비인간화, 폭력, 생명 손실, 집단 학살 및 인종 차별 정책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들의 자유, 존엄성 및 자결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교회는 진정한 지속 가능한 평화는 지배, 점령 또는 폭력이 아닌 오직 정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는 지역 내 교회 및 종교 단체들과 함께 국가의 문화적, 영적, 인도주의적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과 인프라 파괴는 가자지구, 서안지구, 레바논, 시리아 전역의 모든 종교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상황은 팔레스타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과 그들의 사회·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반유대주의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양측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과 유사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은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 모두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시온주의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학의 오용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세대 간 트라우마를 악화시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치와 국제법을 수호하지 못한 다수 국가와 기독교인들의 태도로 형성된 현재의 세계적 도덕적 분열은 가자지구, 서안지구, 레바논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서방 강대국들은 군사 원조와 무기 공급을 통해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지속적 평화가 법과 폭력이 아닌 정의에서 비롯됨을 인식한다. 세계개혁교회협의회(WCRC) 의장은 연설에서 우리에게 '구호라는 사슬을 끊으라'고 촉구하며, 모든 인류를 위해 '예언적으로 말하라'고 이사회에 요청했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정의에 대한 외침은 율법과 예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예수의 가르침은 정의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며,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서서 이스라엘이 연이은 제국 아래 겪은 역사를 기록합니다. 제국에 대한 저항의 맥락에서 바라본 예수의 사역은 정의를 강조했으며, 결국 그의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본을 따라 성명과 행동을 통해 정의에 대한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총회는 다음을 요청합니다:

1. 라이프치히(Leipzig) 선언을 재확인하라. 이 선언은 '팔레스타인에 존재하는 불의와 고통의 상황, 그리고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의 절규 앞에서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진정성이 위태롭다'고 확인하였다.
2. 따라서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 그들의 자유와 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 대한 죄악임을 선언하라.
3. 모든 형태의 기독교 시온주의를 거부하라. 팔레스타인 신학자 미트리 라헤브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기독교 시온주의는 메타내러티브 내에서 성경적/신학적 구조를 활용하면서도 글로벌적 고려를 반영하여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유대인 정착민 식민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 로비이다. 이 정의는 다양한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의 성경적 담론을 폭넓게 고려하기보다는, 그들의 로비 활동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4. 사실 대다수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신학적 근거는 매우 모호하며, 성경의 극소수이지만 다양한 구절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정의의 강조점은 기독교 시온주의의 로비 활동 측면에 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에 기반하여 무엇을 행하느냐에 있다.
5. 억압을 성경적·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왜곡한다는 점을 고백하고 인정하라.
6. 이스라엘이 유엔 결의안과 국제법에 따라 행동할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라.
7. 국제사회가 가자지구 재건과 팔레스타인 민중의 재활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장기적 트라우마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과,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회원 교회들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8.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지역 전체를 위한 정의로운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지원하며, 여기에는 우리 회원 교회, 파트너 및 기타 에큐메니컬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도 포함됩니다.

반유대주의 거부

평의회는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인식하고 규탄합니다. 교회는 배제와 비방에서 폭력과 대량 학살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유대인에 대한 가르침과 박해의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가 성경 해석과 신학을 통해 지속되어 왔음을 인정하며 그 죄를 회개합니다.

반유대주의는 오늘날에도 증오 발언, 음모론,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국가의 행동을 전 세계 유대인 개인의 행동과 동일시하여 전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거부하라
2. 회원 교회들이 상호 이해, 존중,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촉진하는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3. 이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한 전략적 및 자원 확보 업무를 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종교적 민족주의 - 그리스도의 포용적 복음에 대한 증언을 지속하며

회원 교회들은 여러 상황에서 종교적 민족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정치 지도자들과 운동 세력들이 배제, 증오,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독교 상징과 수사법을 오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제와 정의에 대한 우리의 소명과 헌신에 대한 증언을 인내하며, 우리는 미국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 기독교 증언의 본질 자체를 위협하는 종교적 민족주의의 부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권위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오, 배제, 불평등, 폭력의 신앙으로 묘사합니다.

증가하는 세계적 양극화 추세는 종교적 소속을 근거로 한 배제와 차별을 심화시켜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배타성과 증오의 '브랜드'는 많은 전통이 구현하고자 하는 사랑과 긍정, 포용의 신앙 표현과 모순되며 폭력을 부추깁니다. 종교적 소수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권위주의적 정부는 억압과 주변화를 지속시켜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한 개인, 가족, 그리고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종교적 다원주의를 실천하거나 복수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복음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라. 그분은 당시 증오와 교만을 싫어하며 정의롭고 사랑의 통치와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셨다;
2. 종교적 민족주의를 규탄하고 전 세계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확인하며, 교회의 충성은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재확인하는 정책 성명을 채택할 것;
3. 기독교 신앙을 증오, 배제, 불평등, 폭력의 신앙으로 묘사하는 것에 저항하고 맞서도록 돕는 자원, 신학, 실천을 회원 교회들 간에 공유하도록 촉진할 것;
4.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같은 다른 글로벌 교단, 다양한 신앙 전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여 종교적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에서 옹호 활동을 펼칠 것.

유럽의 독재적 경향 -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을 위한 증언

모든 사람이 사회의 공동선을 나누는 데 참여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며, WCRC는 아크라 신앙고백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그 부르심에 따라 권력과 특권의 남용을 정의, 자유, 자결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오늘날 세계는 두려움, 불신, 증오로 점점 더 분열되고 있으며, 권위주의의 부상은 이러한 분열을 악화시킨다. 민주적 제도가 흔들리거나 붕괴될 때, 권위주의, 전체주의, 독재가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공백이 발생한다. 역사는 민주적 원칙이 소홀해질 때 억압적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진보를 저해해 왔음을 보여준다. 세계 각지의 정치 지도자들은 포퓰리즘적 수사, 권위주의적 관행, 권력 집중을 위해 법치, 인권,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점점 더 훼손해 왔습니다. 조지아는 정치 세력이 종교적·민족적·성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아 사회적 분열을 이용해 권력을 공고화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LGBTQ+ 커뮤니티 구성원, 무슬림, 다양한 민족·종교적 소수자 등 이들 집단은 특히 소외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신생 민주주의 국가와 기존 민주주의 국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입니다.

총회는 다음을 촉구합니다:

1. 권위주의의 부상과 그것이 정의, 민주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 참여하라.
2. 민족주의와 독재주의의 성장 속에서 교회의 역할(공범과 저항 모두)을 검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겸손, 자유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추구할 것.

군사화 - 폭력적인 세상 속 평화 증언

오늘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한 지역의 갈등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글로벌 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공급망 차단은 식량 안보, 생계, 공중 보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내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평화의 중재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국과 죽음의 체제에 맞선 WCRC의 고백적 증언과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군사화를 생명의 언약, 정의,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분별합니다. 군사화는 지배를 통한 평화라는 제국의 거짓 약속을 반영하며, 아크라 신앙고백은 이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우상 숭배로 폭로합니다. 교회는 무기의 허위적 안보를 거부하고, 군사화의 주체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동안 전쟁으로 삶과 땅이 찢겨진 이들과 연대하며 값비싼 연대와 증언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군사화는 또한 여러 다른 문제들과 교차합니다.

군사화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폭력적으로 목숨을 잃었고, 많은 이들이 피난처를 찾아 나라를 떠났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 군사화의 영향은 여성과 어린이에게 불균형적으로 해를 끼치며, 종종 유해한 방식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존엄성을 부정한다. 한 세대가 오직 폭력과 불안정만을 경험하며 자라나 그들의 세계관과 미래 지도력을 형성하고 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평화 구축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비폭력적 갈등 해결, 평화 구축 및 정의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
2. 이주민과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사역을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회원 교회들을 독려하십시오.
3. 국제 분쟁으로 인한 식량 불안정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도록 회원 교회들을 독려하십시오.
4. 이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결속을 장려하고 외국인 혐오를 퇴치하는 프로그램 수립을 추진할 것.
5. 생태 및 인도주의의 단체와 협력하여 분쟁 지역의 환경 보호를 옹호하고 전후 복구 노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
6. 회원 교회들이 자국 정부에 군사비 지출 감축을 촉구하도록 요청한다.

아시아(동부)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호소 - 증언의 지속

평화와 화해, 창조의 치유를 위한 증언을 인내하라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동아시아 전역의 긴급 상황을 다루는 여러 건의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호소들은 정의에 대한 공통된 갈망과 신앙과 연대를 통해 폭력의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헌신을 공유합니다.

한반도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순례

2025년, 분단 80주년이자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을 맞는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 평화 지형에서 가장 민감한 분쟁 지역 중 하나이며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의 초점이다. 미중 전략적 경쟁, 북한-러시아-중국의 강화된 안보 협력, 한미일 군사적 삼각 동맹이라는 중첩된 역학은 대화의 언어가 억지 논리에 밀려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의 화해 추구는 단순한 지역적 관심사가 아닌, 폭력의 구조를 평화의 길로 전환할 가능성을 지닌 세계적 영적 여정입니다.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 평화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에큐메니칼 공동체로서, 글로벌 도덕적 책임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치유된 관계와 회복된 신뢰의 통로가 평화라는 우리의 공동 순례에 핵심적임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2017년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WCRC 총회에서 남북한 교회 대표들이 아가페 만찬을 함께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만남은 분단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된 몸으로서 교제를 이루도록 부름받았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한반도 교회들과 함께하며 만남과 대화의 장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2024년 불법적인 계엄령 이후, 한국의 신앙 공동체와 시민 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인도주의적·신앙적 참여를 위한 취약한 여지가 열리는 가운데, 세계 교회는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국민과 함께 화해를 키워나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는 세계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불신이 상호 존중으로 바뀌고, 안보의 논리가 생명을 긍정하는 정의의 실천으로 전환되기를 기도합니다. WCRC는 우리가 이 여정의 동행자임을 확인하며, 한반도와 더 넓은 동북아시아 지역이 하나님의 평화가 뿌리내리는 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 평화와 대만과의 연대

대만은 한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속되는 세계적 긴장이 초래하는 불안과 충격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일원이며 에큐메니칼 가족의 구성원인 대만은 전 세계 교회의 동행과 연대,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만장로교회(PCT)와 함께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평화와 정의라는 공동의 사명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속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몇 년간 대만은 두 강대국 사이의 고조되는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만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거의 매일 중국 군용기가 대만 영공을 침범하며, 빈번한 대규모 군사 훈련은 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끊임없는 위협에 처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 국민으로 하여금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도록 강요합니다. 더욱이 대만은 특히 국제 회의나 행사에 참여할 때 대만 해협 건너 이웃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방해와 억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간섭은 대만을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수십 년간 대만 장로교회는 이 섬에서 신앙과 정의, 평화를 위한 신실한 증인이 되어 왔습니다. 대만 장로교회는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권력에 진실을 말하고, 해방과 자결의 희망을 구현해 왔습니다. 현재의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대만 국민과 교회와 연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조율된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필리핀의 불평안

필리핀의 상황은 불평화의 상태로 특징지어집니다. 이는 역사적 억압,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부패에 뿌리 내린 만연한 불의의 상태입니다. 인권 침해, 체계적 빈곤, 신자유주의 및 외국 이익—특히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미국의 이익—과 연계된 정부 정책들은 필리핀 국민을 계속해서 착취하고 주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무력 충돌은 군사적 수단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불의를 반영합니다. 필리핀 공화국 정부(GRP)와 필리핀 민족민주전선(NDFP) 간의 과거 평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레드태깅(빨갱이 낙인찍기), 탄압, 폭력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과 외국 군사적 영향력,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과의 지역 갈등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필리핀 국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연합 그리스도 교회(UCCP)는 전 세계 에큐메니컬 공동체가 필리핀 정의를 위한 평화 글로벌 에큐메니컬 포럼을 재구성함으로써 필리핀 국민과 연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개혁교회 연합 및 기타 파트너들에게 평화 협상 지원, 인권 침해 규탄, 군사화 저항, 그리고 정의와 주권,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교회와 공동체의 투쟁에 동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총회는 다음을 촉구합니다:

한국

1.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긴장 완화를 선택하고 대화를 재개하도록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십시오.
2. 한국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도 주일(8월 15일 전 주일)을 지키고, 모든 WCRC 교회들이 각자의 예배에서 공유 기도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하도록 권장하십시오.
3. WCRC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개발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EFK)을 지원하고 강화하여, 남북 교회 및 지역 교회들 간의 만남과 신학적 대화의 장을 재개하도록 합니다.
4. 신앙 기반 참여와 봉사를 가로막는 제재 및 여행 제한에 대한 인도적 예외를 옹호하십시오.
5. 청년 교류, 평화 교육, 기도 네트워크, 실천적 평화 공동체를 육성하는 에큐메니컬 학습 모임을 통해 한국 평화 순례에 참여합니다.
6. WCRC가 한국과 DMZ에 에큐메니컬 평화 사절단 또는 평화 순례단을 파견하여 전 세계적 연대의 가시적 표징이자 전쟁에 대한 증언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대만

1. 대만 에큐메니컬 포럼(TEF) 플랫폼을 통해 PCT 및 대만 국민들과 함께 여정을 진행하여 대만의 국제적 가시성을 높이고 이 지역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우리의 공동 증언을 강화합니다.

필리핀

1. 필리핀 국민이 불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자결권을 위해 투쟁하는 데 적극 연대하십시오. 필리핀 정부와 국가민주전선(NDFP) 간 평화 협상 재개를 촉구하여 불평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목회 방문을 통해 인권 및 국제 인도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며, 필리핀 내 폭력과 억압의 근본 원인과 양상, 그리고 이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계적 군사화와 지역 불안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 이해를 밝히고 심화시키십시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계적 군사화와 지역 불안정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십시오.
2. 상호 연대의 세계적 운동 속에서 GEF-PH 설립을 지원하고, 정의에 기반한 평화 활동을 위해서 필리핀 교회들에게 물질적 지원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재 활성화합니다.

미얀마 장로교 성명

또한 평의회는 미얀마 장로교회의 제출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는 억압과 갈등 속에서도 교회가 견디고 있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모든 주가 군대와 혁명 단체 간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의료, 교육, 통신, 교통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군대의 '4대 차단 전략'은 민간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인명 손실 및 이주)을 끼쳤습니다. 강제 징병법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국

외로 도피하게 되어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PCM(미얀마 교회 협의회) 10개 총회 중 7개가 정부 학교가 전혀 운영되지 않는 분쟁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에 더해 2025년 3월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파괴적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친 주(州)에서 벌어지는 우리 형제자매들 간의 갈등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교회들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대화하고, 돌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미얀마의 평화, 정의,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2. 미얀마 국민과 억압 아래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십시오.
3. 신앙과 긍휼의 실천으로서 교회의 교육, 의료, 평화 구축 노력을 지원하십시오.

베네수엘라와 카리브해 지역 - 전쟁이 아닌 평화의 지역

카리브해 지역 회원 교회들은 특히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군사화와 외국의 개입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약 단속 작전을 명분으로 한 미국 해군 병력 배치의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지역 긴장과 군사화를 가중시켜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카리브해 지역은 특히 미군 주둔으로 인해 긴장과 전쟁의 장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해상 개입이라는 부당한 제국주의적 행동은 카리브해 국가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 수단이자 삶의 기반인 그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해당하고 '마약 테러리스트'로 허위 낙인찍힐 수 있으며, 그들의 배와 선박은 미국 군사 공격이나 차단 작전의 오류와 불법적인 표적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카리브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평화의 지대로 남아야 합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미국이 주도하는 베네수엘라와 그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침략, 특히 표적화된 탄압과 낙인을 규탄할 것.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봉쇄의 즉각적 해제를 촉구하는 글로벌 및 지역 캠페인을 조직하고 추진할 것.
2.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에 대한 불법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3. 미국이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유엔 및 다자간 기구들이 외교적 노력을 동원하여 양국화와 인권 상황에 대한 비군사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촉구하여, 외국의 개입 없이 완전한 민주주의와 자결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
5. AIPRAL 및 기타 참여 의사가 있는 에큐메니컬 주체들과 함께 베네수엘라 내 우리 회원 교회들 방문하여 목회적 연대를 실천하라.

아이티 - 평화, 정의, 회복을 위한 외침

아이티는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인명 손실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식민주의의 유산, 지속되는 이민 문제, 그리고 갱단에 무기를 공급하여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기 밀매를 통해 이 위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75만 명의 아이티 이민자가 거주하며, 그중 다수는 우리 이웃이자 지역 교회 구성원입니다. 미국은 아이티의 정치적 불안정과 저개발 경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갱 폭력 속에서 아이티로 유입되는 무기 상당수는 미국에서 밀수된 것입니다. 아이티는 여전히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인구의 59% 이상이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티인과 아이티계 미국인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의 아프리카계 후손들에게 파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입니다. 아이티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프랑스의 노예제와 식민지 지배로부터 자력으로 해방을 이룬 유일한 국가입니다. 노예화된 아프리카인들로 구성된 식민지에서 독립한 포스트콜로니얼 공화국으

로 진화한 이후, 아이티와 그 국민들은 프랑스와 공모한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보복과 처벌을 견뎌왔습니다. 아이티는 흑인 반식민지 저항의 상징으로서 계속해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의 유산, 배상, 탈식민지화, 현대적 인종차별, 글로벌 이주 문제 등 지속되는 과제들을 고려할 때, 아이티의 운명은 여전히 국제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제27차 총회는

1. 은 아이티 내 평화, 정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 채택을 촉구합니다.

독일 교회들의 연대 호소: 변화하는 맥락 속의 증언

독일 회원 교회들은 유럽의 급변하는 종교 지형에 대한 성찰을 제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종교적 소속이 없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는 전통적인 사역, 제자도, 공동체 모델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적 소속이 없는 사람들이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종교적 소속이 없는 인구는 약 3,900만 명(전체 인구의 46.8%, 1990년 22% 대비)이며, 약 3,800만 명(21.5% 개신교 [1990년 36.9%], 23.7%가 개신교 [1990년 35.8%]),

올해 말까지 종교적 소속이 없는 사람들의 수가 모든 기독교 교회 신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우리 개혁 교회와 교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 세계 많은 교회들에 비해 여전히 강력한 구조, 자원, 자유를 가진 매우 특권적인 위치에 있어 사역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앞으로 재정적 자원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들이 고군분투하는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복음은 들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속된 교인들과 새로운 교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공동체를 조성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가족의 형제자매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회에는

1. 회원 교회 내에 존재하는 신학적·교육적 자원을 탐구하여, 교인 감소와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에 직면한 교회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는 전략에 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마다가스카르의 극빈층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5년 8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9월 25일, 물과 전기 같은 기본 생필품을 요구하는 청년 시위가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깊은 사회적 절망과 기회 부재를 반영한 이 운동은 당국의 폭력적 탄압에 부딪혀 사망자, 체포자 그리고 불안정한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일부 군인들은 시위대 편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도피와 다른 헌법적 지도자들의 부재 이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 공석을 선언하고 개입한 군인 중 한 명에게 임시로 행정권을 이양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쿠데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WCRC에 요청합니다:

- 마다가스카르 국민의 외침, 특히 국가의 참담한 상황에 대한 고통과 더 정의로운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명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국제 언론에 의해 억눌리고 때로는 왜곡된 이 외침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다가스카르 국민과 역사적 전환점을 이끈 대중 운동을 주도한 Z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과도기 국가 원수로 헌법재판소(HCC)에 의해 임명된 미셸 란드리아니리나 대령을 포함한 마다가스카르의 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주변 팀이 마다가스카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변화를 위한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 거대한 섬의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빈곤으로 몰아넣은 부패와 횡령과 진정한 단절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재건을 위해 기도합니다.
- 마다가스카르 국민이 '피하바나나(Fihavanana)' 전통 속에서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국제 기구들이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원조와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촉구하십시오. 이는 국민에게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 믿음과 정의와 희망 안에서 인내하기

이처럼 다양하고 종종 상호 연관된 제출을 통해, 교제 공동체의 교회들은 각 민족과 지역의 절규와 희망을 증언해 왔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며, 총회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분별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즉, 고백하고 증언하며 개혁되어 — 정의와 평화, 그리고 피조물의 치유라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